

— 10월호 Vol.3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울독

2020. 10. 15

울독 홈 스페이스, 집 짓기와 방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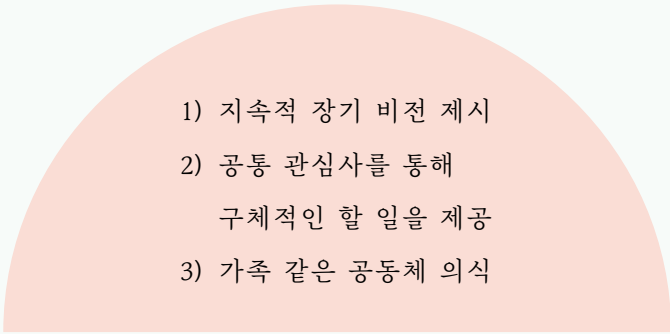
정진호 교수
(한동해 포럼 회장)

“하나의 동해로 여는 남북경협과 유라시아 시대”
라는 꿈과 비전을 품고 시작한 우리 포럼이 창립된지 이제 6개월이 다
가옵니다. 올 한해도 어느새 두어 달 후면 종착점에 도달합니다.

경상북도 남북경협 포럼에서 한동해 포럼으로, 다시 유라시아 원이스
트씨 포럼으로 변해가는 동안,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북
도에서 임명한 전문가 위원들, 이 분들은 남북경협을 위한 연구 또는
사업을 꿈꾸며 모인 분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알게된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여러 동지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강
연을 다니다가 만난 분들도 계시고, 울릉도 세미나에 강사로 모셨다가
얼떨결에 회원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통일
비전교실을 진행하다가 만난 통꿈 동지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
자들도 세미나를 돕다가 어리둥절 학생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 결속력도 동질감도 공통점도 많지 않은 이 회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비전 아래 모이게 되었을까? 아니 장차 하나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
람들을 모으려고 처음부터 궁리하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경북도에서
시작한 일을 돕다보니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보며 생각
하니 이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비전 공동체는 지속적인 비전 제시가 없으면 자연스레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공동체를 움직이는 비결과 결속력은 아래 세가지에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또는 두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목표는 셋 다 갖추는 것입니다.

- 
- 1) 지속적 장기 비전 제시
 - 2) 공통 관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할 일을 제공
 - 3)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

이것은 제가 지난 세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비전은 주로 지도자 또는 지도부에서 제시됩니다. 할일을 제공하기 위해 그 틀을 만드는 것은 지도부의 제안을 통해 회원들이 반응하여 형성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은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안 회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럼의 비전과 할일과 공동체 의식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홈>을 만드려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집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시작한 <홈 페이지> 작업입니다. 20세기에는 홈 페이지라고 평면적인 개념으로 명했지만, 21세기 5G 3차원 영상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대에는 입체적인 <홈 스페이스>라는 명칭이 더 적합합니다.

<홈 스페이스>를 만들다 보니, 아하 이것이 <집 짓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집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목적의 방도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포럼의 특성상 모든 회원들이 밖에서 하는 일들은 직업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비전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을 바로 세운다면, 그 공간에 모여들어서 서로 할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의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함께 집을 세워 갑시다.

<홈 스페이스> 기획자 이소명 연구원, 설계사 안정운 연구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오픈할 때 모두 함께 기쁘게 들어오셔서 즐겨주세요. 그를 위해 식구가 될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다양한 방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일곱 개의 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 다섯개 방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방이고, 아래 두 방은 그 일을 돕기 위한 지원방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의 제안에 의해 또 새로운 방들이 더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회원님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 위의 일곱 개의 방 중에 한 방씩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방을 하나씩 골라주세요. 그래야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남북경협포럼에서 활동하시던 위원님들은 자동으로 남북경협팀 안의 4개 분과에 소속되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들어가고 싶은 다른 방이 있으시면 누구든 중복으로 2개까지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개의 방이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곳이냐고요?

궁금하시죠? 아래 사이트를 눌러주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https://youtu.be/Pn2zppg_OY8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카톡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표 형식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방에 안들어 오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나중에 임의로 집어넣겠습니다. ^^

반응이 없는 회원들은 직접 전화 방문하여 모집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홈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우리 두 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원하시는 방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홈이 완성되는 날, 다 같이 모여서 축배를 들며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앞길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빕니다.

- 제1 방: 남북경협팀
- 제2 방: 실크로드팀
- 제3 방: 울독세미나팀
- 제4 방: 교육개발팀
- 제5 방: 통꿈 스쿨팀

- 제6 방: 기획·홍보팀
- 제7 방: 수익·사업팀

기업은 꿈과 책임을 먹고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



장유경 대표
((주)큐비엠 대표)

주식회사 큐비엠(Qualified Bio & Minerals)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신기술기업 01호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 수심 1,500미터의 울릉도-독도 해양심층수를 취수하고 그 해양심층수로부터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영양소인 마그네슘, 셀레늄, 망간, 요오드, 칼륨 등 미네랄 70여종을 천연추출하는 미네랄전문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음료, 화장품은 시작으로 바이오기업까지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8년에 오랜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인허가를 통해 동해안과 울릉도에 심층수기업이 탄생하였습니다. 큐비엠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의가 아닌 과학적 정의에 따라 심해 1,500m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홀로 생명체의 필수영양소인 미네랄을 추출하여 임상까지 추진한 외로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련법의 개정, 철벽과도 같았던 법의 개정, 국가 5개년계획의 수정 등을 거쳐 당사의 미네랄추출물(파우더형태)가 드디어 식약처에 식품원료로 6년만에 등재가 되었고 임상논문은 최고등급으로 인정받는 해외학술지에 80대1의 경쟁을 뚫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울릉도 공장에 새롭게 시설을 다 뜯어내고 다시 놓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허가를 얻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에는 독도의 이름을 달고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도 하였습니다.



세계적 화장품 ODM기업 코스맥스로부터
투자유치 후 개발·판매중인 화장품



70종의 미네랄이 함유된
전해질 건강기능식품



경도1500의 액상미네랄음료



경도2000의 기능성
3가지 보유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이 낡았을 때에는 개선하기 위해 수년의 노력을 쏟고, 관련법이 없어 그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으려고 하면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며, 그를 위해 과학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회사를 보고 미쳤다고 했고, 또 혹자는 그돈이면 회사를 몇 개 살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힘에 겨워 오늘일지 내일일지 쓰러질 날이 턱밑까지 왔을 때 중국의 기업이 회사를 매각하라고 수차례 제안해왔지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독도심해를 매각하는 것은 할 수 없었기에 피터지고 살아터져오를때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주) 큐비엠 울릉도공장

큐비엠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수심 1,500m라는 넘버원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 신기술 01호 기업이 되었고, 국내외 최초로 해양심층수(추출미네랄)로 사람임상을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는 미FDA에 원료 등록 및 기능성인증획득을 목표로 다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출시하는 제품은 모두 최초입니다.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은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꿈을 꾸며 사회적 책임을 하고자 할 때 언젠가는 탄생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끔은 대표이사인 저의 강한 고집이 고집을 넘어 아집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전 직원이 힘겨워하는 것 아닐까, 우리를 믿고 투자해준 세계적 화장품기업 코스맥스와 의사분들,,, 그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고뇌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큐비엠은 머니라는 유혹앞에서도 우리가 울릉도-독도를 지켜야 하는 주체임을 잊지 않고자 애썼고, 대충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본질에 바탕에 제품을 만들고자 바보같이 미련한 연구개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전 세계에 어느나라와의 소유권분쟁을 하는 긴장지역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최고의 제품이 생산되어 나가는 자연그대로의 혁신아이슬랜드가 되기를 꿈꾸며 꽃을 피울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과 한동해 포럼



이승탈 이사장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본 포럼 고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흔히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패권을 놓고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이 서로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해 왔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수 없는 모순적인 딜레마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 냉전적 갈등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만한 창의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길이 급선무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찾아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위 ‘신북방 정책’이라는 제3의 출구전략이다.

러시아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극동 개발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극동러시아경제를 동아시아경제권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심적인 신동방정책을 펼치며 투자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태평양으로의 출로를 위해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항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등 양국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4도 영토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진출을 위해 전례없는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환동해지역을 근간으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다자협력의 길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남북한 대립 및 강대국 간의 반목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의 극동러시아 진출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과 일본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신북방 대륙진출의 지평을 열어가는 국가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침내 환동해 수역을 관통해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이곳은 21세기 동아시아시대의 핵심구역으로 거듭나는 역사전환의 거대한 통로가 될 전망이다. 이 일은 미래가 불확실한 한반도 현실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제3의 출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다자협력에 새로운 판도를 제공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동대학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해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을 설립하고 '한동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한국의 동쪽 '한동'에 '울독(울릉도, 독도)이 있다. '울독'은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시대사적 꽃대가 될만하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한동해 포럼'을 통하여 환동해경제권을 기반으로 하는 신북방 사역의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남북한 통일 및 한민족 미래의 부흥을 예비하는 신거대전략(New Grand Strategy)이 될 것이다.



10월의 소식

1) 경상북도 남북경제협력포럼이 주최하고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한동해포럼)이 주관 하에 경상북도 남북경협포럼 해양농축수산업개발분과 분과회의가 10월 16일 15:00~17:00에 구룡포읍에 위치한 포항어선안전조업국에서 열립니다. 2020년 남북경협과제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회의로, "남북해양수산협력센터 및 유전자 뱅크 구축 사업세미나"라는 주제 하에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 한동해 포럼이란?

① 소개글



② 재정 현황



7) 회원가입 안내

① 입회 신청서



② 정관



3) 매달 15일에 발간할 뉴스레터 <울독>에 우리 포럼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컬럼이나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포럼 공식 메일 (OneEastSea.Forum@gmail.com) 또는 안정윤 연구원(ahn123@handong.edu)에게 매달 5일까지 보내주십시오.